

고용노동부 강원지청, 폭염 대응 상황 민관 합동 긴급 점검 실시

고용노동부 강원지청(지청장 권구형)은 7월 31일(금) 10시 30분 춘천 지방정부합동청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방정부, 북부지방산림청,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,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지회,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폭염 대응 상황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.

최근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지속 발령되고, 7월 27일(월) 15시 행정안전부의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“경계”에서 최고 단계인 “심각”단계로 격상되는 등 노동자 안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.

이날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종사자, 야외 풀베기 사업 참여자 등 공공부문 야외 작업자, 건설 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,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특히, 강원지청은 체감온도 38℃ 이상 시 발효되는 폭염중대경보 시,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단계에 따른 선제적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
체감온도 33℃ 이상
폭염주의보

☑️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
체감온도 35℃ 이상
폭염경보

☑️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
체감온도 38℃ 이상
폭염중대경보

☑️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권구형 지청장은 이날 긴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면서 “매년 폭염의 강도가 높아지는 등 노동자 건강장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”라며, “정부·민간기관이 한 뜻으로 여름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영락 (033-269-3580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원해인 (033-269-3526)



